

여남고, 일반고 우수프로그램 선정

학생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교육부장관상 독서토론·사제일촌 등 의미 있는 내용 구성



여주시 금오도에 위치한 여남고등학교가 일반고 기반 조성을 위한 국 최고 교육력 제고 사업 우수 프로그램에 해남고와 함께 전국 15개 학교에 최종 선정됐다.

여남고는 '사제일촌 한 가족 진로교육, 밝고 당당한 미래를 열다'는 주제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9.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에 등극하는 영예를 안고 내년 1월, 교육부장관 표창 및 현판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는다.

여남고는 2016학년도부터 '사제일촌 한 가족 즐거운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학교 특색교육으로 설계하고 선생님 1명과 6~7명의 학생들이 독서토론, 언론정보 등 11개 분야의 진로와 관련한 가족을

구성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사제일촌 해피타임 시간 등을 활용하여 가족 단위 모임 및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왔다.

먼저, 정과 사랑이 영그는 사제일촌 진로상담활동으로 매 학기 진로상담 주관을 운영하여 학교생활 및 진로활동 멘토링, 독서활동 및 진로진학상담을 실시했다. 해피타임 시간에는 가족들과의 친목을 다지고, 부모나 친구와의 갈등 해소법, 학교생활 적응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가족끼리 얘기를 나누었다. 진학 상담은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대학면접에 응하는 방법, 진로희망학과에 대한 조언도 곁들였다. 진로상담을 위해 졸업한 대학 1학년 선배가 학교를 방문하여

집중 멘토링을 하거나 섬 지역에 근무하는 기관장들이 각 분야별로 진로 정보를 안내하기도 했다.

꿈을 더 크게 키우는 사제일촌 진로체험활동은 비렁길 숲 생태환경 탐구, 서울 역사 문화체험 및 대학탐방, 해외 역사문화체험, 내 고장 역사문화 탐방 등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발현하는 진로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자기 주도적 참여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다.

함께 나누며 배려하는 사제일촌 진로 봉사활동은 모자 동행 봉사활동, 동문 선배 초청 강연회 및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책과 삶이 맞닿은 동아리활동을 전개하고, 사제동행 봉사 보고서 작성, 봉사 실천 사례 발표, 아나바다 운동 등 나눔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눔과 배려, 소통 등 미래핵심 역량을 함양했다.

이밖에도 나를 표현하는 사제일촌 독서 연구제와 팝송 경연대회를 통해 자기표현 능력 및 자신감을 향상하여 대학 면접시험에서 당당하게 입할 수 있도록 했고, 나를 넘어 너를 만나는 사제일촌 독서토론대회를 통해 독서 내용에 대한 분석과 토론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을 배양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당당한 교사로 바로서기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여 수업 혁신과 과

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에 주력했다. 바람직한 평가와 평가 문화 개발, 삶의 주인으로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 교육 등 8명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연수원학교를 운영하고, 전교사가 100시간 이상의 자발적 원격연수 시간도 가졌다. 또한 독서토론 수업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초청 공개 수업, 제안 공개 수업, 좋은 수업 등 공개수업도 개인당 6회씩 운영하여 학생 중심 수업 나눔 문화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중심 수업을 실현했다.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한 오명환 교감은 "학생 만족도 1위,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 통합학교의 비전으로 지성, 인성, 감성을 두루 갖춘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학교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며,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년 연속 대학진학을 100%라는 성과를 거양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교실, 그 어느 학교보다도 표정이 밝고 환한 교실을 실현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여남고는 2015.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된 데 이어, 2017. 고교 교육력 제고 우수학교, 전남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2018. 도서관활용 최우수학교, 독서토론교육 유망학교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여수=김도현 기자



'교원 저자 발굴' 출판기념회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이영주)이 28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 드립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 드립니다' 사업은 동·서부교육청에서 현장교원 전문성 신장과 현장 중심 우수 교육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3년째 이어오는 광주교육청 대표 사업이다. 독자들은 교육현장에서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 이상 축적된 현장감이 살아있는 이야기를 책으로 만날 수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저자, 교육청 관계자, 우리지역 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 저자들의 도서소개, 저자 사

인회 등 책으로 풀어내는 학교 이야기를 독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 1년 동안의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발간된 6권의 책을 살펴보면, '알면 보이고 배우면 느끼는 생태인문교실(광주삼육초서혜리)', '길 위에서 길을 묻다(광주석산고 차재형)', '교사, 자치로 깨어나다(광주상무초 김경희 외 9명)', '한글, 수·연산 놀이 수업(하백초 김순희 외 1명)', '수업이 즐거워지는 5분 음악놀이(매곡초 김향성 외 6명)',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일신중 이준영)'으로 학교 선

생들이 현장에서 학생들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

모두가 빛나는 유치원 혁신 위한 교육계획수립 및 과정중심평가 워크숍

실현가능한 계획 논의 재구성 통해 유효성 검증



전남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지난 26일 주제강의를 시작으로 30일, 12월 7일, 중서부권은 12월 14일, 12월 21일은 등부권에서 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모두가 빛나는 유치원 혁신을 위한 교육계획수립 및 과정중심평가 워크숍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전남대학교 권귀엽 교수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이

해' 주제 강의를 중심으로, 단위 유치원의 유아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 속에서 합의의 과정과 함께 교육과정 열 개짜기를 위한 실행연수로 진행하

였다. 구성원 스스로 민주적 협의의 과정을 통해 비전(목표)을 만들어 가고, 유치원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교

육과정의 이해, 교육과정 운영 사례, 유아·놀이 중심 수업의 실제, 유아 및 교육과정 평가 방법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유치원 유형별로 교육계획을 분석, 재구성해 봄으로써 교사들의 실질적인 교육과정 편성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나주영 교사(무안초병설유치원)는 "유치원의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합의된 비전(목표) 세우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구체적인 교육활동의 내용을 세우고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빛고을혁신학교 직급 통합 다모임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6일 '빛고을혁신학교 직급 통합 다모임'을 라페스타 연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 빛고을혁신학교 포럼'의 첫 순서로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교무실무사 등 빛고을혁신학교의 운영주체 350명이 참석했다.

이번 '빛고을혁신학교 직급 통합 다모임'은 빛고을혁신학교 운영의 주체인 다섯 직급이 처음으로 한 원탁에 앉아 각 직급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직급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빛고을 혁신학교 직급 통합 다모임' 논의의 주제는 각 직급별로 사전 협의회를 통해 정해졌으며 '교

직원의 자발성,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등의 다섯 주제로 소통이 이루어졌다.

직급 통합 다모임에 참석한 혁신학교의 교사들은 "빛고을혁신학교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학생을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자리였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다모임에 참석한 교무실무사들은 "나의 어려움을 다른 구성원들이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에서 존중받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 공감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